2023년 10월 8일(주일) 제1651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2023 사명자대회 오늘부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
10.8(주)-11.26(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11.20(월)-11.25(토) 새벽 5:00, 강사:손달익 위임목사

2023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1. 서울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하여]

2. 하나님 앞에(Coram Deo)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3.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4.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거목으로 성장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5.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지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6.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극복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가을학기 모집공고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3년도 가을학기:
   10. 7일(토)-12.10 (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기준)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010-9189-8019)
5. 구글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회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연기	찾아가는 힐링연기	목	20:00-(120분)	5주	702	박재현 배우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모란 (비단채색화)	주일	14:00-(100분)	5주	704	유은경 집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아브라함선교회·사라전도회 야외예배

10월 10일(화) 오전 11시 베델하우스

가을을 맞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인 아브라함 선교회와 사라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야외예배를 갖습니다. 장소는 베델하우스이며 10월 10일(화)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가을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

10.21(토),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2회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가 10.21(토),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2회 진행됩니다. 온라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https://meet.google.com/iei-obmw-fhs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1991년 11월 24일 창간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copyrights © seoulchurch, all right reserved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tel :(02)558-1106 fax : (02)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기쁜 날을 기다리며

(습 3:14-20)

손달익 위임목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는 바가 무척 많았습니다. 우선 크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염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리에는 진리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드리는 향기가 가득하고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줄곧 약소국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해 외침에 시달리고 강대국들의 협박에 울어야 했습니다. 땅은 황폐하고 소출은 없고 가난은 질긴 운명처럼 달라붙어 그 민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믿음과 말씀을 떠났고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사랑과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당시의 이스라엘을 마땅히 벌 받아야 하고 망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회요 용서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17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의 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하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며
>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 하나님께 대한
> 내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 회개입니다
>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
> 하나님은
>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1. 주의 은혜의 날은 회개의 날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왕족 출신으로 그 나라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화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상류사회의 부도덕과 포악, 교만과 방종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죄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과 회개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제사제도가 너무 무거운 종교적 짐이었고, 그런 종교적 의무들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강조하신 것은 제사를 통하여 죄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가 거룩하게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선민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쁜 날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제사를 드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성결을 원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하셨습니다.

왕하 22장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대대적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26세의 젊은 왕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엄청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선지자 스바냐는 계시를 받았고 요시야는 그 계시대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은혜의 날을 맞이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날은 회개의 날입니다.

2.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험하고 복잡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격려했던 것은 하나님 임재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출 40:38)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축복은 함께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온전하고 영원히 성취된 것은 예수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은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 임재로 설명합니다.(마 1:22,23)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마지막도 함께 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까? 당시 유다왕국은 우상숭배와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자들, 신앙에 대한 냉담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이 때문에 당시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가 강력한 신앙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들은 폐쇄된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며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그 과정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모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요시아 왕은 모든 우상숭배와 사회악을 제거하면서 대대적 종교와 사회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한 삶의 모습을 회복할 때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회복된 관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16-17절) 본문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최악의 상태였던 유다 왕국이었지만 스스로 개혁을 시도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셨고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며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스바냐서에는'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7번 나타납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갱신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기쁜 날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영합니다!

홍건희 성도 (청년부)

나종헌 성도(3교구)

새신자교육을 5주 동안 받으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교회 오길 잘했다. 이곳이라면 순조롭게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느낀 5주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부에서 지나가는 투로 성경말씀을 접할 때는 단순히 '참 좋은 말들이구나~'라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5주간 짧게나마 배워보니 생각보다 훨씬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주 배우는 성경말씀이 그 한 주 동안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깊이가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더 착하게 살기를 바래왔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계속 다닌다면 좀 더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내 주변과 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땠을 뿐이지만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차근차근 나아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초등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주일 성수하며 신앙생활을 유지만 해오고 있었음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교육을 통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앙망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성아 성도(3교구)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등 진심이라기보다 당연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잠시 기도를 멈추고 했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특히 아이들에게 진실된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큰 고민이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새가족부교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또 다시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과 4가족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케냐를 위해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서울교회 손달익 위임목사님과 선교위원회와 온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시작된 케냐는 지금 쌀쌀한 날씨 속에서 빵과 우유 교통비 기름값 등 2배로 오른 물가로 인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간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큰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악 선교센터(찬양신학교)**

선교센터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시고 학생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과 연습실이 있고 식당과 예배실 교무실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에는 주변 주민과 가족, 친구들을 위해 재학생과 찬양팀이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 및 구제, 급식 사역**

1. 마사이지역 에세키초등학교 340명, 주자지역 미리마이니초등학교 720명, 마다레지역 루아라카초등학교 80명 아마니어린이 합창단 30명 아마니 컨서바토리학생 40명과 스텝 등 전체 1,224명의 점심 급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제공한다고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전학을 오고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상승하여 부족한 음식을 모두가 나눠서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2. 티리리카초등학교 스페셜(장애우)클라스 학생들은 매주 2회씩 교육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소아마비, 앞이 안보이는 아이,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교육하며 사랑으로 나누며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3. 아마니 음악컨서바토리에서는 현재 40여 명의 학생을 위해 성경, 음악이론, 키보드, 기

(4면에 계속)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명자대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김영희 안수집사
(2023 사명자대회 기획분과)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사명자대회를 평안 중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도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상은 평안하지만 지금의 저의 신앙은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에서 멀어져 있음을 느끼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설립한 우리 교회가 50일간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던 사명자대회를 기억합니다. 본인의 맡은 한 시간의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던 권사님들, 기도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새벽 12시에서 5시 사이의 힘든 시간에도 기꺼이 자원하셔서 기도하시던 집사님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받고자 달음질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올해에는 릴레이 기도가 교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잠시 멈추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는 2023년 사명자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로목사님으로부터 항상 들은 말씀이 개인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Coram Deo) 사명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읽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헌신하던 첫 사랑을 회복하는 2023년 사명자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면에 이어)

타, 찬양인도법, 합창, 워쉽 앙상블, 성악특별반 등 찬양지도자를 양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찬양자로 키우기 위해 수업료도 안 받으며 시작한 학교입니다.

4. 아마니장학생:개인적으로 장학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의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4명에게 일부 장학금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5.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학생 헬렌과 뇌성마비로 제대로 이동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엄마가 항상 돌봐 줘야 하는 모세에게 생필품 일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1. 케냐의 물가 안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 나가도록
2. 아름답게 세워진 음악선교센터를 통하여 복음으로 잘 훈련받은 찬양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3. 스텝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신실한 종이 되도록
4. 점심 급식을 먹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잘 세워지도록
5. 김낙형·오정녀 선교사의 영육 간의 강건과 지혜를 갖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케냐선교사 김낙형·오정녀 올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한나 권사(3교구, 시인)

펄펄 끓어
가슴을 불 태우던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의 귀한 말씀
깊이 듣고
눈을 감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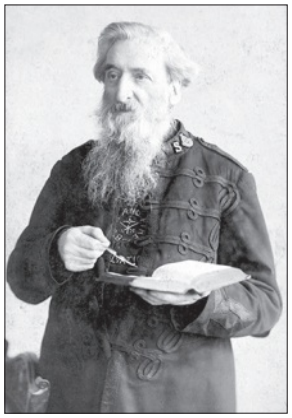
풀가에 엎디어
풀잎들 일으켜 세워
가슴 찢는 소리까지 듣게 하며

푸른 초장에 나를 뉘고
쉬게 한 후에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무화과나무 동산
이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다리를 놓아
무거운 나를 옮겨주나니

온 가슴을 태우던 말씀
내 잔
그렇게 넘치나이다.

구세군 분규사건과 자선냄비의 시작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자선냄비의 등장을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
(1928년 12월 22일자)

경성 도심에 구세군의 '동정(同情)남비'가 등장했음을 알린 조선일보 기사
(1938년 12월 22일자).(왼쪽)
그후 계속 사회의 관심을 받은 구세군 자선냄비(오른쪽)

구세군은 종종 사회사업 기관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어엿한 교회이다.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이름이 잘 드러내듯이 신학이나 예전, 종교적 체험 같은 종교 내적의 문제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신앙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제와 봉사에 적극적인 구세군의 특징은 기독교 교파의 다양성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구세군을 사회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구세군의 한국 선교는 1908년에 시작되었다. 한국 진출에는 후발주자인 셈이다. 그러나 선교초기 구세군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선교 개시 8개월 만에 3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구세군의 빠른 성장은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의 결과이다. 구세군은 선교사들이 내한하자마자 바로 통역인을 고용하여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노방 순회전도에 나섰다. 다른 교파들의 선교사들이 내한 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차분히 선교를 준비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속도전이었다.

그런데 이 빠른 선교 착수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영어에 능통하지 않았던 통역인들이 구세군이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모르는 채 통역에 나섰던 것이었다. 많은 경우 한국인 통역인들은 구세군을 영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돕기 위해 파견한 군대로 이해했다. 게다가 통역인의 상당수는 애초에 설교를 통역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레짐작한 대로 설교를 통역했다. 그 결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구세군 사관(구세군에서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의 설교는 구세군에 들어오면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지급한다는 말로 와전되었다. 이런 오해는 국권을 지키고 싶었던 민족주의 성향의 조선인들을 구세군으로 마구 끌어들였다. 일부 조선인 신자들은 자신들끼리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자신들이 구세군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종교적 목적 없이 구세군에 들어온 이들이 빠져나갔지만 그중 일부는 구세군에 남았다. 그 결과 초기 한국구세군에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이 많았다.

1920년대로 넘어오면 한국교회 안에 한국인 리더십이 성장하면서 선교사 중심의 교회 구조를 비판하는 일이 많아졌다.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 한 명인 한석진이 '선교사들은 이제 그만 한국을 떠나라'고 말하고 그 말에 항의하는 마펫(Samuel A. Moffett)에게 "당장 한국을 떠나시오. 여기 더 있으면 백해무익한 존재가 될 뿐이오"라고 일갈한 것도 1925년의 일이었다. 구세군도 선교사와 한국인들의 갈등이 커져갔다. 더욱이 구세군은 군대식의 엄격한 명령체계를 가진 반면 자주와 독립의식에 투철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1926년 11월, 칠순을 맞아 세계 선교지역 순방에 나선 세계구세군 대장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한국인 사관들은 대장이 한국을 방문할 때 선교사관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회 운영에 한국인이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양인 사관 중 일부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 및 재정관리에서 한국인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급여도 문제였는데 당시 한국인 사관은 서양인 사관의 1/8, 일본인 사관은 1/5의 급여를 받았다. 극심한 생활고와 차별대우에 지친 한국인 사관들은 진정서를 읽은 대장이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진정서를 전달하려는 한국인 사관과 이를 막으려는 서양인 사관 사이에 난장판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서의 내용은 브람웰 부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이 못마땅했던 부스는 예정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며 모두 군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인 사관 50여 명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무더기 면직되었다. 사관학교(신학교)는 문을 닫았고, 학생도 전원 퇴학 처리되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한국인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교회에 남을 리 없었다. 1928년 순식간에 구세군의 교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단순히 교세만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선교 이래 꾸준히 구호와 자선사업에 나서며 쌓은 사회적 신뢰와 애정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위기 앞에서 구세군은 다시 초심을 발휘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명을 하거나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묵묵히 세상에 자신이 어떤 조직인지 다시 보여주었다. 1928년 한국 구세군은 새로운 구호사업을 실시했다. 바로 '자선냄비' 사업이었다. 1928년은 극심한 흉년으로 대규모의 구호사업이 필요한 해였고 구세군은 그해 겨울 더욱 적극적으로 빈민구제사업에 나섰다. 그리고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선냄비를 실시한 것이었다. 자선냄비는 구세군이 서양인의 단체가 아니라 굶주리는 한국인을 위한 단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다시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세군이 위기를 돌파하는 순간이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다. 본 회퍼는 그의 시 "나는 누구인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득녀

- 미국 거주 Wesley 성도·백인실 성도 가정 득녀 Amalia 아기, 9월 22일(금)
(8교구 백승갑 안수집사 • 박길자 권사 외손녀)

식사 제공

- 4교구 박명철 안수집사·이소명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70인전도대 10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오후 1시-2시)	수	전도회 (오후 1시-2시)	토	선교회 (오후 1시-2시)
10.1	자원자	10.4	도르가, 루디아, 뵈뵈	10.7	빌립, 안드레, 베드로
10.8	자원자, 마리아	10.11	한나	10.14	바울, 엘리야
10.15	자원자	10.18	에스더	10.21	모세
10.22	자원자	10.25	리브가	10.28	이삭
10.29	자원자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0월9일	월	막 4–5	
10월10일	화	막 6–7	
10월11일	수	막 8–9	
10월12일	목	막 10–11	
10월13일	금	막 12–13	
10월14일	토	막 14	
10월15일	주일	막 15–16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0월9일	월	아 1–8	
10월10일	화	사 1–7	
10월11일	수	사 8–14	
10월12일	목	사 15–26	
10월13일	금	사 27–33	
10월14일	토	사 34–41	
10월15일	주일	사 42–49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살피심을 경험하며, 신행일치의 삶의 예물로 예배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2023년 사명자대회가 시작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서울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는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와 위로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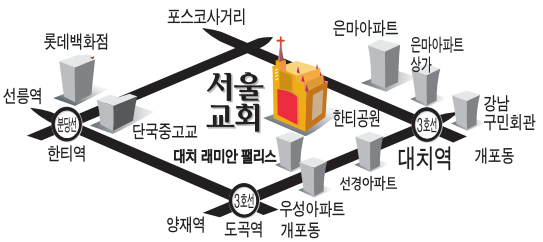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어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